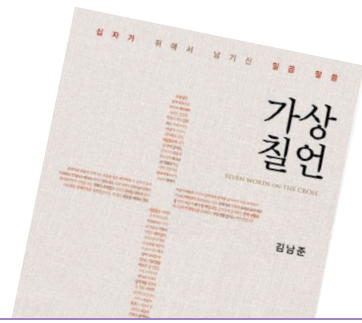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_ 히브리서 2:18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 고난주간 특새 | 5 중등부 부모초청예배 | 7 마더와이즈 / 해피맘스쿨 | 10 교회사용설명서 |
| 3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 5 청소년숲 자녀축복새벽기도 | 8 호스피스부 월례회 | 11 십자말풀이 |
| 4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6 너나들이부 수련회 | 9 교사일기 | 12 공동체 소식 |



믿을 수 있는 존재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가까이 왔습니다. 「ChatGPT」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 학습하여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DALL-E」는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린이를 위한 부활절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표지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부활절 달걀’, ‘부활절 토끼’ 그리고 ‘어린이’가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니 어떠신가요? 잘 그려준 거 같으신가요? 이 외에도 많은 그림들을 그려주었지만 인공지능이 그려준 “어린이를 위한 부활절 그림”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함글함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 그 사랑

2023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주제로 4월 3일(월) ~ 5일(수)에는 박상진 목사님이, 6일(목) ~ 8일(토)에는 임동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월 (4.3)	화 (4.4)	수 (4.5)	목 (4.6)	금 (4.7)	토 (4.8)
강사	박상진 목사			임동진 목사		
인도	이대혁 목사	배윤환 목사	이상훈 목사	박민규 목사	류경민 목사	이윤경 목사
대표기도	이용수 장로	황용환 장로	임익수 장로	홍완식 장로	김용규 장로	정준호 장로
성경말씀	요한복음 1:42	마가복음 14:51-52	누가복음 22:24-27	마태복음 26:2	마태복음 27:45-50	요한복음 19:28-30
제목	예수님의 눈길	베 흘이불의 신앙	누가 크냐	유월절, 피가되시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니
특송	5,6교구	1,2교구	3,4교구	7,8교구	청년부	유유청

고난주간은 사순절 절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첫 주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성전 정화,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체포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됨으로 구원의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되새겨 한 주간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지내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 이 시대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곧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없이 습관화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정화는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헐리더라도 삼일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 강화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대환난,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겿세마네로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번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은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 고통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적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이 얼마나 고통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체포와 심문 가롯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신 예수님은 여섯 번의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처음 세 번은 유대인들에게 받은 심문으로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 모인 공회, 그리고 새벽에 다시 한번 공회 앞에서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형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기에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고 심문을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 역시 죄가 없음을 알았으나 예수님을 회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합니다.

십자가 처형과 장사됨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불리며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로 보냅니다. 성금요일은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을 통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 시리즈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3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표어로 주님의교회 선교 공동체가 2023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교회 미션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교회는 예배 및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고, 국내-통일-해외 선교사(선교지)와 결연을 맺고 재정 및 기도의 후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월별 캠페인을 진행하여 일상에서의 선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생각’과 ‘여러 선교지역’과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인 것입니다.

3월에는 그 노력을 선교트리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서 이미 실천한 것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들을 적고 결단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을지 어려우신 분에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 1) 선교에 대한 내 생각이 확장되는 것을 적어 보세요. 혹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집 주변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 2)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지 재정 및 기도 후원에 관해 적어보세요. 내가 품고 있는 나라와 선교사님을 함께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 3)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캠퍼스, 사회 등)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결단을 적어보세요. (예배자의 삶, 이웃을 위한 봉사, 함께함, 복음증거, 환경보호에 참여, 말과 행동에 구별됨 등)
- 4) 교회에서 진행하는 월별 하나님의 선교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3월에는 선교트리 작성과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진행합니다. (우리들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점심봉사, 청량리 밥퍼 노숙인 점심봉사, (사)섬김과 나눔 죽 / 생필품 전달 봉사, (사)거리의천사들 노숙인 야간봉사 등)

이렇게 정리해보니 선교트리에 적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던 교회와 가정의 여러 활동을 하나로 묶은 개념인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됐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교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내가 나다움으로, 세상이 세상다움으로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류경민 목사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나의 이야기여야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지난 2월 24일(금)과 25일(토) 2023년도 상반기 겨자씨인도자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이를 수련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날에는 교구와 겨자씨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와 선교(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선교적 교회로 신학교에서 사례발표가 되는 성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공동대표로 계신 조주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하시면서 강의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대상화하여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나의 이야기여야 하고, 때때로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봉건 영주의 성과 같을 때가 있고, 교회와 세상이 서로 동등하여 상호 교류/소통이 되기보다 일방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빈번함을 말씀하시며, 통계를 통해 점차 탈종교화 되어가는 실정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사회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를 교회와 교인들의 자기 인식이 사회와 관련된 인식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는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아닌 우리들의 사회 활동과 이에 따른 이미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 그리 믿을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조직과 제도, 행위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종교 행위와 조직과 제도는 모두 다 종교 관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종교 행위와 조직, 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 관념, 곧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해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점점되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교회론적 전환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선교적 교회를 주장한 신학자 앨런 허쉬는 그의 저서 「잊혀진 교회의 길」(원제: The Forgotten ways)를 통해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끼여 있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독점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구원과 은총의 수여자로 고고한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론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주관/관장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세상이 만나고 교집합을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전통적 교회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매력적이지 ‘교회로 와서 보라’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적 이해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서 ‘내가 교회임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성암교회는 10여 년 전쯤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고, 지역 사회를 읽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1.5km 반경으로 하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의 복지, 공급, 사회 안전망, 지역 주민들의 욕구 등을 설문으로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암교회에 대한 대외적 인식과 지역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이웃 교회들에 대해 일반 조사와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지역 사회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교인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또, 교회에 컨설팅을 위해 들어온 조직과 기존에 존재하였던 교회 조직,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조직이 연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는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소통의 창구를 세웠고,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가 반영되어 개발된 사역들(방과후 교실, 바오밥카페, 다섯콩 어린이작은도서관, 안부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점차 개발되어, 비영리단체들과 정부지자체 기관과 협력/연계하는 길을 개발하기도 하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진두지휘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니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지역에 선교사로 살게 하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후로 어떻게 섬기고 선교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개발하고, 선교사적 정체성을 갖고 세상과 만나고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주영 목사



청소년
중등부 부모초청예배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팍콘트리 중등부는 지난 3월 12일(주일)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라는 주제로 부모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모초청 예배였음에도 총 302명(부모 114명)이 함께 호흡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성민 전도사의 인도로 중등부 가족들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2학년 6반 친구들의 섬김으로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최혜원 목사가 누가복음 8장 43-48절 말씀,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중등부 일정과 사역들을 알아갔습니다. 10시부터 아이들은 4층 순식탁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담임선생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등부 부모초청예배를 통해 부모님들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혈루증 여인을 편견 없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 봐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중등부 가족들 모두를 숨 쉬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등부는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숨 막히는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중등부 예배의 자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등부 교사들과 교사들이 애쓰겠습니다. 중등부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등부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혜원 목사 / 청소년 중등부



청소년
자녀축복새벽기도회

Live a Life, 우리는 하나!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새벽, 김마리아 회관 제3집회실은 청소년숲 학생, 교사,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매월 둘째 주는 자녀축복새벽기도회로 새벽예배가 드려지는데 3월은 청소년숲 주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숲 가족들은 예배 전, 함께 모여 주님의교회 7대 미션이 담긴 청소년숲의 주제곡, “Live a Life”(김화수 작사) 노래와 율동으로 특별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였지만, 우리의 마음과 함께한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참 따뜻했습니다.

장성식 목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령님”으로 찬양과 예배의 문을 열었고, 청소년숲 중등부의 임미희 권사, 안수현 청년교사, 권시연 학생이 정성 어린 기도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후 정우림 전도사의 인도로 청소년숲 가족들의 특별 찬양 순서가 이어졌고, 한시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18장 17-19절)을 선포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주님의교회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숲 가족들과 함께 주관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Live a Life”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님의교회, 그리고 청소년숲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성민 전도사 / 청소년 중등부

너나들이부
수련회

“너와나”에서 우리로, 나인 투 나인 수련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애정,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인 탈북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 자비, 인도함이 있었기에 사선을 넘어, 중국이라는 고난의 지역을 거쳐 자유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와 반대향의 통제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에 “너와나”가 확연히 구별되는 현실적인 삶의 아비투스(아비투스)가 마음과 신체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러한 삶의 자세는 한국 사회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너나들이 신앙공동체에 속해 수년 간 함께 하였음에도 그들은 “너와나”의 이분적인 사고와 행태의 틀을 깨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인’ 단단한 소라 껍데기를 등에 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껍질을 깨뜨리고 “너와나”에서 “우리”로 변화시킨 계기는 2023년 동계 수련회였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이번 동계수련회 일정, 장소 선정, 식사 문제 등에 있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작년 연말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수련회 개최 문제로 이어졌다. 너나들이 신앙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타 신앙공동체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공동체이고, 구성원 모두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이다. 각인각색, 백인백색으로 수련회가 산으로 올라 갈 형국이었다. 혼란스럽고 답답하였다. 멈추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수련회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많은 너나들이 친구들과 멘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늦추어 토요일 당일로 결정하고 장소는 교회로 선정하였다. 일정이 당일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풀코스로 강행군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탈북청년 수련회가 “나인 투 나인”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다. 장소를 교회로 결정했을 때 예상 참석인원은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 탈북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청년들을 울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기도회 중심의 수련회가 되도록 간구하였다. 모든 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고, 참석인원도 어린이, 탈북청년, 멘토 집사님 포함하여 무려 31명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 권사님들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 멘토 집사님들의 열띤 간담회, 청년들 상호 간의 친교와 교류, 너무나 아름다운 행사였다.

그러나 수련회 피날레는 역시 기도회였다. 류경민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의 열기는 탈북청년들의 강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을 눈물의 바다로 이끌어 탈북청년 모두 울고 울고 울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북한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간의 탈북 과정을 생각하고, 현실의 암담함을 생각할 때 그동안 쌓이고 쌓인 아픔이 눈물이 되었다. 기도의 열정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너와나”의 경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함께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서로 안으면서 중보기도 할 때 이들의 마음은 녹아서 하나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탈북청년들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갔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고백합니다.

김기연 집사 / 너나들이부 부장



가정사역원
마더와이즈

좋은 엄마가 되는 시간 -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 “성경적 여성성”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모임입니다. 1년에 상반기(9주)와 하반기(9주) 동안 진행이 되며 전체 커리큘럼의 주제는 자유-지혜-회복-동행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 (8주)	요한복음 15장에 기초를 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
	지혜 (8주)	삶의 5가지 우선순위를 배우고, 그 질서 안에서 결혼 생활과 자녀양육의 성경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회복 (6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된 나와 관계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과정
	동행 (7주)	인생의 거울에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서서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 (50대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손주가 있는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

마더와이즈의 매일의 성경공부에는 매일의 주제에 따른 ‘좋은 어머니 Tip’이 기재되어 있는데 마더와이즈에서 말하는 좋은 엄마란, 1)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 2) 하나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엄마 3)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따라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매일의 규칙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배워나가고,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멘토링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 소그룹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함께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리로 여성들의 삶이 변화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 나와 소그룹 멤버의 건강한 관계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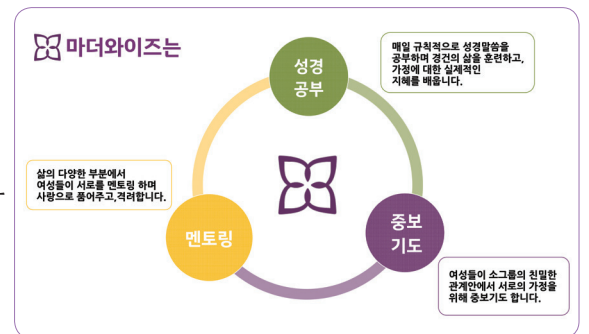
마더와이즈의 사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5 · 1 · 8 Days Time Weeks	5일 - 매 주차별 큰 주제에 따른 주중 5일의 성경공부
	1회 - 마더와이즈 모임 & 중보기도
	8주 - 하나의 주제에 대해 8주 정도의 모임을 진행

일주일에 한 번의 마더와이즈 모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과 매일 만나는 5일의 개인 묵상시간입니다.

6S라고 불리는 마더와이즈의 중보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별 기도 (Subject by Subject) | 각자 본인의 기도제목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자신의 기도 순서에 자신의 기도제목으로 기도
2. 짧은 기도 (Short Prayer) |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기도
3. 간단한 기도 (Simple Prayer) | 간단한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
4. 구체적인 기도 (Specific Prayer Requests) | 기도 응답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기도
5. 침묵기도 (Simple Periods) |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침묵하며 들음
6. 작은 모둠 기도 (Small Groups) | 소그룹 안에서 기도



조원들과 준비된 기도제목을 간단하게 나누어 서로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며 조원의 중보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님의교회 마더와이즈 제5기 지혜편을 모집하는 기간 동안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청해주신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담당할 교역자로서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며 함께 배워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도 마더와이즈를 통해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윤경 목사 / 가정사역원 마더와이즈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임산부의 행복한 몸과 마음을 위한 태교·예배의 자리

샬롬♥ 해피맘스쿨은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에 속한 임산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의 행복한 몸과 마음을 위한 태교·예배의 자리로, 매년 상반기·하반기(8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주제와 말씀들 그리고 다양한 태교 활동들을 통해 태아와 교감하고, 행복한 엄마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세워가며, 복된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해피맘스쿨입니다.

꽃피는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며 임신 중에 있는 엄마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엄마’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7기 ‘지혜로운 엄마, 잠언 태교’는 지혜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엄마의 삶을 지향하며 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엄마와 가족, 가까운 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개인적인 아픔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신체적 변화 등을 마주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피맘스쿨이 임신의 기간 동안, 이후 출산과 회복의 과정, 그리고 자녀 양육의 시간 속에서 꼭 필요할 때 떠오르는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계속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김은선 목사 /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호스피스부
월례회

손가락을 얹어라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가 코로나로 3년을 모이지도, 봉사하지도 못하다가 3월 4일(토)에 3층 초등부실에서 40여명 봉사자들이 월례회로 모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은 길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여겨 왔던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얹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호스피스부 담당 배운환 목사의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게 되는 호스피스 사역은 하늘나라에 가시는 환우분들이 느끼는 기억 속에서 이 땅의 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까운 기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이 봉사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봉사자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감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이들을 떠나보냈거나, 떠나 보내야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긴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함께한다는 소명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호스피스부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천국의 삶의 소망과 위로를 조명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헤어짐의 슬픔은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재회하게 될 그 날까지의 긴 기다림을 함께 견디고 소망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소망해 보았습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는 1993년 10월에 정식으로 제직회의 한 부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활동은 1990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부터 33년 전에 시작해서 경조사 등 모든 행사에 키보드와 성가대 가운 등 호스피스 봉사자 차량 트렁크에 싣고 새벽에 가정, 장례식장, 장지까지 다니면서 조가대로 애쓰셨던 호스피스 봉사자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논현동 Y 부속건물 수협건물 아래 위층을 빌려서 수요예배, 새벽예배, 저녁예배를 드리며 결혼식도 2층에서 진행을 할 때 주부 성가대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축가로 부르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호스피스 성가대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 해에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동에서 수요예배 때에 환우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병실을 방문하여 환우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마사지나 목욕을 시켜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1993년에는 이러한 섬김의 봉사가 호스피스 활동과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부터 처음으로 10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30-40여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병원과 가정과 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돌보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1997년부터는 정동 제일교회에 위탁해 받아오던 교육을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스피스 교육이 목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교역자들과 사모들 거의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1기 교육에 외부 교인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호스피스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위탁교육으로 호스피스 교육이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은 외부 위탁 교육으로 각당복지재단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행하는 무지개 호스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아직도 50여명이 호스피스 봉사자로 비록 교회에서 작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호스피스 활동비로 많이 부족하여 봉사 비용 대부분은 거의 자비로 시간과 비용과 환우들에게 드릴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병원 봉사가 거의 멈추어서 요즘은 봉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랑은 생명 삶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관문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 봉사자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섬길 때 그 환우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새 생명의 옷을 입고 더이상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인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로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부의 이 귀한 섬김이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에서 해 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월례회를 마치며 봉사자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호스피스부 월례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기운으로 겨우내 땅속에 묻혀 있던 생명들이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호스피스부 봉사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차차 재개되고 확장되어 임종을 앞둔 환우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서 하나님나라로 인도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육이 약한 모든 이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새 힘 허락하시어 속히 떨쳐 일어나게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안에 예수사랑의 마음이 소홀해졌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는 마음과 새 힘을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들의 간구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 봉사가 완전히 재개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재 국립의료원, 아산병원, 적십자병원, 새오름 호스피스에서 봉사가 시작되었고, 곧 3월 중순부터 의정부 호스피스가 재개될 예정이오니 기도와 섬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 호스피스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니 이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형섭 장로 / 호스피스부

교사일기
영아2부

유아숲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자로 성장하다

사랑스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씨앗(영아2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허소정입니다. 저는 자녀들과 아기부,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살 때부터 유치부에서 7년 정도 찬양 선생님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님의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수능을 끝내고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친한 친구가 유치부 교사를 같이 해보자는 권유였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았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놀아 주고 싶어 하던 성격이어서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할 것 같았지만 막상 유치부 안을 들어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기분도 좋아지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게 느껴져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기다리셨고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유일한 즐거움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여 아동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교사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직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주일에는 찬양 선생님이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찬양 선생님이라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아기 자녀가 둘이다 보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남편도 함께 영아부 스텝으로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데리고 교사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영아부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많았기에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부모님들도 공과 시간에 저의 자녀를 돌봐주시면서 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들과도 서로 나눔을 할 때 공감과 이해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달의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기의 영아들이기 때문에 매주 성장하는 영아들을 보면 주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영아들이 온몸을 움직이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신나게 찬양을 할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 모아 기도를 할 때, “아멘”하고 큰소리로 응답할 때 등 예배 순간 순간마다 이 아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또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녀와 함께 호흡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 중에 자녀를 안고 축복하는 ‘예쁜 아가 품에 안고’찬양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부모 됨의 기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교회 유유청청 선배 교사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셨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교사를 통한 소명과 사명감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_ 시편 63:3~4

허소정 집사 / 영아2부

교회사용설명서③

(사)섬김과나눔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사)섬김과나눔은 주님의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하기 전인 2010년 송파구청과 송파구립가락본동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9~10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설립 운영하기로 의결했고, 이듬해인 2011년 4월 5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7일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설립 허가를 받았고, 5월 27일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9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 수행 및 지원이며, 목적사업은 늘푸른대학(어르신대학) 운영,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 불우이웃 특별구제 및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어린이집·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 등입니다. 사무실은 교회가 있는 김마리아회관 5층에 있습니다.

설립한 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맡은 이래, 송파구와 협력하여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김화수 주님의교회 담임목사가 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무국과 늘푸른대학부, 생활지원부, 특별구제부를 두어 이웃 섬김 활동을 하고 있고, 위탁기관으로 송파교육복지센터와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은 늘푸른대학(어르신대학) 운영,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 이웃사랑 특별지원, 유관기관(단체) 복지사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개최 등입니다.

사용 방법

(사)섬김과나눔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원 가입과 후원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분이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에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돕는 일입니다. 후원금(기부금)으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로, 후원금 모금액은 전액 (사)섬김과나눔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하며, 후원금(회비 포함)을 납부한 후원자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의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거나, 늘푸른대학(어르신대학)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어르신 생활 지원 활동, 불우이웃 특별구제, 유관기관(단체) 복지사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기관인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교육복지센터, 가락본동어린이집의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섬김과나눔 회원 가입, 또는 후원으로 동참하시거나, 직접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분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www.seomgimi.com)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마리아회관 5층의 법인사무국을 방문하시거나 전화(02-415-5113), 이메일(seomgimi1@hanmail.net)로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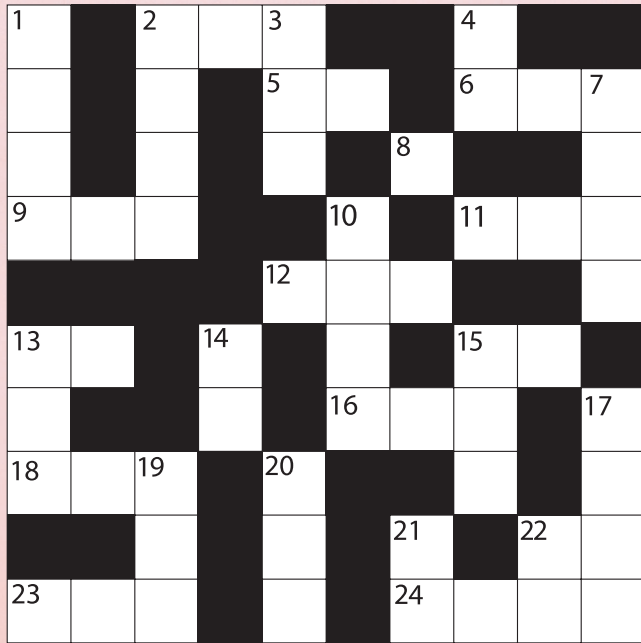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섬김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소박한 손길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섬김과나눔은 주님의교회 가족들이 경계를 넘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조직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열왕기하

이번 호에는 <열왕기하>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앗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4호 '열왕기상' 편 정답



가로 힌트

- 레바논 산맥에서 시작되어 다메섹으로 흐르는 아람의 강. 나병에 걸린 아람의 장관은 이 강의 물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다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왕하 5:12)
- 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상숭배와 탐욕스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악한 왕으로, 아하시야와 여호람의 아버지이다. (왕하 3:1)
-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발을 갈고 있다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왕하 2:12)
- 오래전부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가축. 마차를 끌기도 한다. (왕하 5:9)
- 아합과 아하시야 시대의 선지자. 아하시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왕하 1:3-4)
- 머리털이 없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랬다. (왕하 2:23)
- 유다의 5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며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고 바알 신을 받아들였다. (왕하 8:18)
-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 줄기는 속이 비어 있다. 성경에서는 연약하거나 변덕스러움, 날카롭게 찌름 등의 비유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왕하 18:21)
-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던 나라.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패하여 이전에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주었다. (왕하 13:22~25)
-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아하야의 아들이었다. (왕하 9:9)
-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저지대. 성경에서는 요단 계곡까지를 가리키며, 사해를 이곳의 바다라고 불렀다. (왕하 14:25)
- 지중해 하이파만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즈르엘 골짜기를 따라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산맥. 오래전부터 종교적 중심지였다. (왕하 2:25)
-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가운데 하나.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의 신 바알세뱀을 섬겼다. (왕하 1:2)
- 요시아 왕의 시종관. 성전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유다 열왕이 태양신을 위해 드린 말들이 있었다. (왕하 23:11)

세로 힌트

- 아굽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 열왕기 시대에 이르러 역대 왕들이 타락하여 분열이 계속되었다. (왕하 9:14)
-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합의 아들이며 바알을 숭배했다. (왕하 1:2)
- 아람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였으며, 엘리사의 권고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고 치료되었다. (왕하 5:1)
-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 선지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곳에 머물렀으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이곳에 들렀다. (왕하 2:2)
- 북이스라엘의 수도. 오랫동안 수난을 겪었던 지역으로, 앗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했다. (왕하 17:3~6)
- 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었다. (왕하 11:2)
-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지방. 여호와가 갈대아인의 노략군을 보내어 여호야김과 유다를 쳐서 멸했다. (왕하 24:2)
-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군대 장관이었으나 엘리사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하 9:1~10)
- 유다 왕국의 10대 왕. 웃시아의 다른 이름이다. (왕하 14:21)
-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은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왕하 17:31)
- 고대 도시, 또는 제국. 함무라비와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하다. (왕하 17:24)
- 유다 왕국의 9대 왕. 요아스 왕의 부하였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하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왕하 12:21)
- 이스라엘의 한 성읍. 앗수르 군대에게 점령되었다. (왕하 18:34)

교회 행사

온 가족이 함께하는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 그 사랑
4.3(월)-8(토) 오전 5:20 / 대예배실

4.3(월)-5(수)
박상진 목사 (영로회신학대학교 교수)

4.6(목)-8(토)
임동진 목사 (前 주님의교회 사무장로 / 前 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극단 예맥 대표)

주님의교회

Good Friday

「성금요일예배」

손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

그가 흘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제벌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2023.4.7(금) 오후 7시 / 대예배실

주님의교회

남·여 선교회 행사

봄맞이
교회 대청소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아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행사를 실시 합니다.

일시 4.8(토) 06:30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후)

장소 집합 장소 : 지하식당
청소 구역 : 교회 예배실 및 정선학교 주변

주님의교회 남여선교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10

통일을 여는
기도회

• 날짜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5층 제1집회실
• 대상 : 통일선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주님의교회

제4기 유아 영성나무-센싱 더스토리

‘센싱 더스토리(Sensing TheStory)’는 성경의 이야기를
교구를 이용하여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어린이를 초대하여 그 이야기를 어린이가
재현함으로써 어린이가 성경 이야기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 교육 기간 : 4월 12일(수) ~ 5월 31일(수) / 매주 수요일, 총 8주
- 교육 시간 : 수요일 오후 7시 20분 ~ 8시 30분(수요예배 시간)
- 교육 장소 : 싹트네실(1층 유아부실)
- 교육 대상 : 6~7세(미취학) 어린이
- 교육 내용 : 하나님의 사람-아브라함, 다윗 이야기
(센싱 더스토리 교구놀이 및 활동)

문의 : 김오정 전도사 010-9494-7441

주님의교회

구글신청링크

2022, 2023 통합
향존직 선거 시행공고

● 향존직 선거 일정

- 향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3.3.5(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3.4.9(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3.5.14(주일), 2차선거 2023.5.21(주일) 예정
-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입니다

● 향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향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질 및 성품	새동역당 아수여부 (선거년도말 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 - 만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 - 만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 - 만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향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저부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② 피택(선출) 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2년 12월 18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주님의교회

교회 일정

- 4/3-8(월-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5(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6교구 주관)
4/9(주일) 부활주일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4/3(월)~4/8(토) 오전 5:20 대예배실
주제 : 십자가 그 사랑
강사 : 월-수 박상진 목사(장신대 교수)
목-토 임동진 목사(前 열린문교회 담임, 前 주님의교회 사무장로, 前 극단 예맥 대표)
2. 해피맘스쿨 제7기 “지혜로운 엄마, 잠언태교” 모집
모집대상 : 임산부
모집기간 : 오늘 (3/26)까지
교육기간 : 4/4~5/23(매주 화) 8주, 오후 1:00~2:00(ZOOM)
문 의 : 김은선 목사(010.4773.8186)
3. 유아영성나무(센싱 더스토리) 제4기 모집
대 상 : 6~7세 미취학 어린이
장 소 : 싹트네실(1층)
신청방법 :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구글신청서 제출,
4/2(주일)까지 신청
기 간 : 4/12~5/31(매주 수) 8주, 오후 7:20~8:30
문 의 : 김오정 전도사(010.9497.7441)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